

완도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청정 환경·기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완도군은 5월 25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시설인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해양기후치유센터는 12억 원을 투입, 지난해 9월 착공하여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71㎡ 규모로 다목적실과 데이터룸, 탈의실, 물품 보관실 등을 갖췄다.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의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하는 해변 노르딕워킹, 요가 등 다양하고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운영했으나 향후 기상변화에 상관없이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착공한 해양

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에서는 신지 명사십리에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고, 약산에는 해양치유의 숲과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하여 완도 전역을 해양치유산업화 단지로 거점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치유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래 신산업을 이야기할 때 해양치유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활력이 완도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운영비 절감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 기대

강진군이 2021년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도비 1,3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투입해 강진읍분회, 군동 안동, 성진 신기, 병영 동삼인, 읍동 화신경로당 등 총 5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상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부담을 없애 노인복지 실현은 물론, 전기료 절감 등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경로당의 운영비 절

감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경로당 4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kw~15kw 용량의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인재 박소영 화백 기증작품 8월말까지 전시

고향에 51점 작품 기증

진도군이 화조화의 대가인 '인재 박소영 화백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화가인 박소영 화백은 진도읍 동외리 출신으로 평생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 51점을 진도군에 최근 기증했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도향토문화회관 기획전시실(2층)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소영 화백은 한국 남종화의 거장인 의재 허백련 선생께 사사를 받아 섬세하고 아름다운 화조화 묘사로 화단에서는 화조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국제 예술문화교류전 작품, 신일 본서도전 초대 작품, 현대 한국화협회 전 연출품, 호남미술 50년전 작품과 부산일보사 초대 개인전 등을 개최했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박소영 화백의 기증 작품은 기존에 기증된 작품과 차별화된 화조화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다양한 화풍의 한국화를 보유하는 등의 큰 의

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옥산 김육진, 백포 광남배, 금봉 박행보, 전정 박항환, 육전 강지주, 고산 김민재, 초야 황삼순, 서암 이우진 화백 등의 기증에 이어 인재 박소영 화백 작품 기증으로 한국화 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스포츠마케팅 활기 비결은 '철저한 방역'

강화된 방역 매뉴얼로 선제 대응 "안전·지역경제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이"



해남군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올 동계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연인원 3만 1,000여명의 스포츠인들이 해남을 찾았다.

이는 코로나 발생이전 연간 19만 5,000여명에 비해 15%선까지 줄어든 수치이지만 군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인 스포츠마케팅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숙박, 음식

식점 등 경제유발효과가 100억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온 점을 감안, 올 들어 각종 스포츠대회를 재개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적용하여 코로나19 특별 방역팀을 구성, 여러 단계에 걸친 방역으로 안전한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남군을 방문하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은 2주전부터 발열체크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방문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 결과를 제출해야만 해남군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회장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2차례에 걸친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대

회 시간 이후에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철저한 방역으로 지난 5월 16일 치러진 제59회 전국보철 중별 배드민턴 리그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빠르게 선별하고, 600여명이 참여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염자 없이 대회를 종료한 바 있다.

해남군의 선제적 대응은 스포츠대회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 표본 매뉴얼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방역당국의 호평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군은 오는 6월중 개최 예정인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철저한 방역 지침에 맞춰 안전한 대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 연사회 개최

노동력·인건비 등 기존 대비 60% 절감



장흥군은 지난 25일 관산읍 외동리 시범포장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트

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 연사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는 정중순 장흥군수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늘 수확기 및 줄기 절단기 등 총 4대 장비 시연을 진행했다. 관계자는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를 사용할 경우 평균 작업 시간이

50분/10a으로 노동력, 인건비 등이 기존 대비 6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농촌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절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마늘 수확기를 적기에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